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 인천
담당 부서	배포일자	2023년 9월 17일(일) 총 3매	
관광마이스과	담당자	• 관광마케팅팀장 오현주 ☎440-4001 • 담당자 장은혜 ☎440-4004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평화의 빛으로 물든 강화

- 9월 16일부터 17일, 'DMZ평화i랜드 뮤직페스티벌 in 강화' 열려 -
 - 강화 교동도에서 페스티벌 성료 -

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, 강화군이 지난 16일부터 17까지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개최되는 '2023 DMZ평화i랜드 뮤직페스티벌 in 강화'로 강화 일대는 평화의 빛으로 물들었다.

이번 축제는 비무장지대(DMZ) 접경지역 중 유일한 섬 지역인 인천에서 '사랑' '생태' '예술' '평화'를 테마로 한 사전 버스킹 공연과 평화의 케이팝 콘서트, 평화 토크 음악회, 평화 소리극, 비무장지대(DMZ) 평화의 길 강화코스를 연계한 하이커 & 플로깅, 홍보 및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. 16일 열린 공연에는 외국인 관광객 100여 명도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.

특히 에일리, 오마이걸, 장민호, 온앤오프, 나태주, 은가은 등 11개 팀이 K팝과 댄스, 트로트, 쇼 콰이어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

선보였다.

또한 대룡시장 달고나, 라탄소품 만들기,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과 인천 비무장지대(DMZ) 관광 홍보, 강화 특산물을 이용한 수제 카라멜, 찹쌀떡 등 홍보관을 구성해 관광객들에게 즐거거움을 선사했다.

이번 축제에 방문한 한 관광객은 “다양한 체험이 많아 재미있었고, 인천 비무장지대(DMZ)와 교동 화개정원에 대해 많이 알게 돼 다음에도 또 방문할 예정”이라며 소감을 밝혔다.

행사기간 동안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‘평화i랜드 하이커&플로깅 투어’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통선 구간을 제외하고 진행됐다. 한 참가자는 “비로 인해 민통선 도보 구간을 걷지 못했지만, 닿을 듯 말 듯한 북녘땅을 보며 평화가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”며 “기회가 된다면 비무장지대(DMZ) 평화의 길을 꼭 걷고 싶다”고 말했다.

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인천 비무장지대(DMZ)와 교동이 평화관광의 시작점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비무장지대(DMZ)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매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행사사진 >

